전기車 보편화 '눈앞'

기아차, 전용 정비장 전국 6개소 설치
3천만원대 '조에' 내년 국내판매 예정

전기차 정비 작업장 'EV 워크베이' 조감도.

내년 국내 출시 예정인 르노의 전기차 조에(zoe).

멀게만 느껴졌던 전기차 보편화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전기차 전용 정비 작업장이 마련되는가 하면 현재 시장에서 볼 수 없던 3천만원대 전기차가 내년 초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니로 EV, 쏘울 부스터 EV 등 전기차 출시에 발맞춰 전기차 고객의 차량 점검 용이성을 높이고 작업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협력사 오토큐에 전기차 정비 작업장 'EV 워크베이(EV Workbay)'를 설치했다.

'EV 워크베이'는 현재 ▲남광주서비스(광주) ▲천안아산서비스(아산) ▲비전점(평택) ▲서김해서비스(김해) ▲원스탑종합자동차(부산) ▲마포국도서비스(서울)까지 전국 6개소 오토큐에 설치돼 있다.

기아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EV 워크베이'를 ▲대광공업사(충주) ▲현대공업사(청주) ▲증평점(증평) ▲신암점(대구) ▲동홍점(제주)에 추가로 구축하고, 신규 인가 오토큐 사업장부터는 필수적으로 설치해 전기차 소유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아자동차는 맞춤형 다용도 작업대, SST(특수공구), PPE(개인보호장구), 절연 바닥재 등으로 'EV 워크베이'를 구성해 엔지니어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차량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자동차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21기를 오토큐에 추가 설치하는 등 전기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전기차 안심 출동 서비스'를 실시해 전기차 운행 중 배터리 방전으로 주행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연 4회, 편도 80㎞ 한도 내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V 워크베이' 구축 취지에 대해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데 비해 전기차 전용 정비 인프라는 부족해 고객들이 겪을 불편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전기차 정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고객들이 전문적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 전기차 누적 판매량 1위인 르노 '조에(ZOE)'가 한국식 충전규격을 새로 달고 내년 초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르노는 지난 10년간 고수해온 자체 충전방식(AC 3상)까지 바꿔가며 한국에 공을 들인다. 이 차는 장거리형 모델이면서 아직까지 국내엔 없는 3천만원대 전기차라는 점에서 시장 파급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이 내년 초 국내 출시하는 전기차 '조에'가 충전방식 '콤보1'을 채용한다. 유럽 판매량 1위인 르노가 특정 국가 시장을 위해 2013년부터 지켜온 자체 충전규격을 바꾼 최초 사례다.

'조에'는 자체 충전 규격(AC 3상)을 한국 물량에 한해 우리 정부가 정한 국제 충전 표준 규격 중 하나인 '콤보1'으로 바꿨다.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인버터와 OBC(충전기) 등을 교체·추가한 형태다.

이미 국내 공용 충전 인프라를 대상으로 충전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르노삼성이 내부 목표한 한해 조에 판매 물량은 5천-6천대다.

'조에'는 2013년 유럽 출시돼 최근 3년(2015-2017년)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 누적 판매량은 약 10만대에 달한다. 특히 내년에 출시하는 신형 조에는 LG화학의 41㎾h급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 한번 충전에 299㎞(WLPT기준·겨울철 200㎞) 주행한다.

유럽 내 판매 가격은 트림 별로 2만7천820유로(약 3천711만원)에서 2만8천670유로(약 3천825만원) 수준이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국내 판매 가격도 유럽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다. /임후성 기자

4월 자동차 생산·수출 '양호'

신차 출시 효과…수입차 재고부족으로 내수는 위축

지난달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과 수출은 증가했으나 내수시장은 수입차 판매 급감의 여파로 위축세를 보였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7만1천93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달 조업일수가 22일로 하루 늘어난 데다가 신차 출시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등 신차 출시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의 내수·수출 증가 등으로 생산이 8.0% 증가했다.

기아차는 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형 쏘울, 니로 등의 수출 호조로 생산이 3.8% 늘어났다.

쌍용차도 신형 코란도 등 신차출시 효과로 생산이 29.3% 증가한 반면 르노삼성은 부분파업 등의 영향으로 32.9% 감소했다.

내수 판매는 국산차 신차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판매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3.6% 감소한 15만5천27대에 그쳤다.

수입차는 계속된 재고물량 부족 등으로 28.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점유율도 지난해 4월 16.9%에서 지난달 12.6%로 줄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보조금 지급 확대 등으로 지난해 4월 대비 57.8% 증가한 1만3천109대로 집계됐다.

수출은 북미·유럽 등에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SUV, 친환경차가 잘 팔린 덕분에 3.0% 증가한 22만3천235대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5.8% 증가한 37억6천만달러(약 4조4천691억원)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그러나 부분파업의 영향으로 주력모델의 수출물량 부족과 이란 수출중단 등으로 수출량이 53.4% 급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2019 싼타페' 출시…외관 고급화·실내 정숙성 높여

현대차가 스무살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중형 패밀리 SUV '싼타페'를 새롭게 선보였다.

현대자동차㈜는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전 트림에 기본화하고 후측방 모니터, 후석 취침 모드 등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인 '2019 싼타페'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2019 싼타페'는 기존 상위 트림에만 적용했던 크롬 소재의 ▲라디에이터 그릴 및 그릴 상단 가니쉬 ▲도어 핸들 및 도어 하단 가니쉬 ▲리어 범퍼 가니쉬 등을 모든 트림에 기본화해 외관의 고급감을 높였다.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에는 반광 크롬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및 반편칭 스티어링휠로 내·외관의 특별함을 더했으며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1·2열 모두 적용해 실내 정숙성을 높였다.

가격은 가솔린 2.0T 엔진 ▲프리미엄 2천695만원 ▲익스클루시브 2천955만원 ▲프레스티지 3천269만원 ▲인스퍼레이션 3천595만원이며, 디젤 2.0 엔진과 디젤 2.2 엔진 선택시 각각 255만원과 280만원이 추가된다.

한편 현대차는 2000년 1세대 싼타페로 시작해 올해로 출시 20주년을 맞이한 싼타페 브랜드를 기념하고자 '싼타페 x 타요 허그벨트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임후성 기자

현대차 광주지역본부 담양 고서 산덕마을서 1사1촌 농촌 일손돕기

현대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쨈용 딸기 수확이 한창인 담양군 고서면 산덕마을을 찾아 '1사1촌 농번기 일손돕기'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광주지역본부 임직원과 서광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및 관계자 40명이 참여해 담양 산덕마을을 찾았으며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딸기 수확에 힘을 보탰다.

딸기 수확과 더불어 현대차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딸기 농사를 마무리하기까지 고생하신 산덕마을 주민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함께 정을 나눴으며,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1사1촌 마을의 바쁜 일손을 돕고, 서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는 농촌체험이라는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현대차 광주지역본부는 앞으로도 담양 산덕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역사회에 1사1촌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상가 매매 [급매]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 대형학원, 한의원, 스포츠, 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 보증금 1억에 월 450만 임대가능

▶ 감정/시세 → 15억
매 가 → 8억

(신규 사업자 환영)
062-382-5500 010-6670-9800

상가매매 [상무지구]

■ 서구 상무지구 6층 (23평)
상가 겸 주택

■ 전체 올 수리 , 내부 깨끗

■ 보 500만 월 50만 (노후대비)

▶ 감정/시세 1억3천
매 가 8천만 (융2천)

062-382-5500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 특수]

☆무료 교육 2회 실시☆ (월,수,토)

① 기초 실전반 (기초 +실전)
② 투자 특수반
(유치권,지분,법지,개발,절반가격)
③ 직업 전문반
(사무실근무,전문컨설팅)
※ 사무실 함께 쓰실분
(책상,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분석스터디)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중흥동 (상가주택) 토39평,건 145평
▶ 감정가 2억9천3백 → 최저가 2억5백
2. 북구 중흥동 (상가건물) 토52평,건43평
▶ 감정가 2억9천6백 → 최저가 2억7백
3. 북구 일곡동 (4층중 1층상가)토15,건41평
▶ 감정가 3억7천6백 → 최저가 2억6천3백
4. 남구 구동 (다가구원룸) 토81평,건127평
▶ 감정가 4억4백 → 최저가 4억4백

062-382-5500 010-6670-9800